

비판사회학 소식지

권두언

신임회장 인사



이항우
(비판사회학회 회장/충북대)

비판사회학회 회원들께 인사드립니다. 2025년 학회장을 맡게 된 충북대 이항우입니다. 신임 운영위원들과 함께 비판사회학회를 발전시켜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5년도 비판사회학회 운영은 내용과 형식의 측면에서 다음 두 가지 기조에 집중하겠습니다. 우선, 내용의 측면에서, 차기 학회는 학회가 사회학과 사회과학의 다양한 비판 패러다임들 사이의 활발한 교류와 토론, 그리고 논쟁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비판사회학회는 '비판'이라는 단어를 학회 이름으로 사용하는 다소 특이한 학회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비판이라는 용어를 학회 이름으로 사용하는 학회는 세계적으로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간호학에서 critical care 학회, 미국 사회학에서 critical sociological association 정도가 있습니다. 비판사회학회의 특이성은 비판이라는 보통명사를 고유명사처럼 사용하는 학회라는 사실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문화나 지역 같은 보통 명사를 연구 주제로 삼는 문화사회학회나 지역사회학회 등과 같은 학회와는 달리, 비판사회학회는 보통 명사로서의 비판을 연구 주제로 삼는 연구자들의 학회라 보기 어렵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비판사회학회에서 비판은 한국사회학회의 '한국'처럼 고유명사의 성격이 분명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비판을 보통명사로 이해하면, 사실 비판적 연구를 하지 않는 사회학자는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사회정치 제도를 비판하려는 욕구는 모든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특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회학자의 작업은 이러저러한 형태의 비판적 작업임이 분명합니다.

(다음 면 계속)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 비판사회학회의 비판에 다른 형태의 비판과 구분시켜 주는 고유 명사적 의미를 부여할까요? 저는 그것을 비판사회학회의 비판이 칸트적 비판 혹은 초월적 비판이 아니라 내부로부터의 비판 혹은 내재적 비판을 지향한다는 사실에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칸트적 초월적 비판이 구체적 역사 과정을 초월하여, 인간과 사회에 관한 추상적이고 초역사적인 보편 법칙을 밝히려는 노력이라면, 내재성의 평면에서 이루어지는 비판은 현실의 역사적 과정 속에 뿌리를 내리고, 역사의 불확정성과 임의성을 드러내는 것을 지향하는 비판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현대 사회과학에서 이처럼 초월적 비판이 아니라 내재적 비판을 추구하는 작업은 대체로 고유명사로서의 비판적 연구 패러다임으로 평가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비판이론, 마르크스의 역사 유물론적 사회비판, 니체와 푸코의 계보학적 사회비판, 네그리와 들루즈의 포스트모던 좌파이론, 신체를 사회비판의 새로운 지형으로 확장한 페미니즘과 신물질론 등이 대표적인 사회비판 패러다임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들 비판 패러다임들 사이의 긴장과 갈등이 결코 사소한 것일 수만은 없겠지만, 저는 우리 비판사회학회가 최근 20여년 간 이처럼 다양한 사회비판 패러다임을 함께 아우르는 학술적 실천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왔다고 믿으며, 우리 학회가 내년에도 그러한 문화와 전통을 더욱 발전시키고 풍성하게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으로, 학회 운영의 형식과 관련하여, 차기 학회는 회원들의 학회 소속감과 연구 네트워크를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한 조직 작업에 헌신하겠습니다. 2024년 현재 우리 학회는 약 250명의 회원들로 구성되어 있고, 대부분의 회원들은 학회지 <<경제와 사회>>에 논문을 투고하거나 춘계와 추계 학술대회에서 논문을 발표하고, 다양한 토론회와 콜로키움에 참여하거나, 운영위원회 및 편집위원회에 결합하는 등의 학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회원들의 활동 중에서 차기 학회는 학술대회와 토론회 그리고 콜로키움을 더욱 활성화하는 일에 더 큰 노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다음 면 계속)

회원들의 강한 헌신이 요구되는 학술지 경제와 사회 논문 발표와 운영 위원회 활동은 이미 커다란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와 사회는 연구재단의 우수등재지로 자리잡았고, 운영위원회의 헌신적인 활동은 비평사회학회를 한국 사회학의 대표적인 학회로 만들었습니다.

이에 비해, 최근의 학술대회나 토론회는 한편으로는 회원들이 자신들의 연구 실적을 등록하는 장으로만 형식적으로 활용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운영위원회가 기획한 세션 중심의 자족적 행사에 머무르는 모습도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한 마디로, 학회 회원은 운영위원회에 결합하는 매우 헌신적인 회원들과 일 년에 한 두 건의 논문을 학회지나 학술대회에 발표하는 것 이외의 부가적인 헌신성을 별로 갖지 않는 회원들로 크게 양분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25년 학회가 운영위원회를 분과체제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문제의식이 크게 작용한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분과체계는 첫째, 회원들 사이의 잠재적 유대 관계를 개인적 친소 관계를 넘어 전공 분야의 근사성을 중심으로 현실화하고, 둘째, 이러한 학술적 유대를 통해 학회의 학술대회나 콜로키움을 조직하고, 셋째, 분과 구성원 내부의 연구 소모임을 활성화하고, 넷째, 분과 회원들의 공동 연구 프로젝트 수행의 산파 역할을 해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1월 1일
이항우

(끝)

탄핵 촉구 성명서

헌법재판관들은 정녕 헌법파괴의 종결자가 되려 하는가?

헌법재판소는 즉각 윤석열 파면을 선고하라!

비판사회학회(회장 충북대 이항우)는 헌법재판소에 즉각적인 윤석열 파면을 강력히 요구한다. 지난해 12월 3일 자행된 윤석열의 친위 쿠데타는 민중의 희생으로 쌓아왔던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뿌리째 뒤흔들며 우리 사회를 엄청난 위기로 몰아넣었다. 윤석열은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겨누었고, 윤석열의 내란은 온 국민이 실시간으로 목격하였다. 시민들은 불법 계엄이 자행되자마자 국회로 달려와 퇴행과 반동의 시작을 막아섰고, 다시는 이 땅에 총칼이 통치하지 못하도록 일상을 뒤로 하고 하루도 빠짐없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내란의 종식과 헌정 질서 수호를 위해 우리 시민은 인내심을 가지고 헌법재판소의 선고를 기다리고 기다렸다. 내란의 증거가 명명백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내하고 기다린 이유는 헌법재판소를 헌정 질서의 마지막 보루로서 존중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떠한 법리로도 탄핵을 선고할 수밖에 없는 사안을 가지고 헌법재판소가 한 달 가까이 침묵하는 것을 우리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이제 인내는 바닥에 다다랐다.

헌법재판관들은 도대체 무엇을 원하는가? 대통령이 언제든지 자기 마음대로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나라에서 살기를 원하는가? 대통령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반대파를 체포하고 감금하고 고문하고 살인해도 되는 나라를 원하는가? 시민의 기본권을 대통령에게 허락받아야만 하는 세상에서 살고 싶은가? 수십 수백만의 시민이 길거리에서 피 흘리며 죽어가는 세상을 바라는가? 군과 경찰이 자신의 부모 형제를 살상하도록 강요받는 반인륜의 국가를 원하는가?

오늘날 한국 사회는 해체와 붕괴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빈부 격차, 수도권-지방의 양극화, 젠더 갈등, 세대 갈등의 문제가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 한국의 정치 세력들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려고 하기는커녕 이를 활용하여 자신들의 이득을 취하려고 하면서 한국 사회를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있다. 이 중심에는 음주와 주술과 망상으로 통치했던 윤석열이 자리 잡고 있다. 이 위기를 극복하고 한국 사회를 다시금 바로 세우기 위한 출발점은 바로 윤석열 파면이다.

비판적 연구와 실천을 지향하는 비판사회학회는 헌법재판소의 즉각적인 윤석열 파면 선고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우리는 동료 시민들과 함께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 수호라는 역사적 책무에 모든 학술적, 실천적 노력을 아낌없이 쏟아부을 것을 천명한다.

2025년 3월 31일

비판사회학회

(다음 면 계속)

강명주(서울대), 강민영, 강민형(전북대), 강이수, 강인화(강원대), 공제욱(상지대), 공준환(서울대), 구도완(환경사회연구소), 구민호(구김중
 이), 구은정(동국대), 권민조(성공회대), 권수현(경상국립대), 김경남 (경북대), 김교성(중앙대), 김기태(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도균(제주
 대), 김동현(서울대), 김란(서울대), 김명수(전남대), 김명희(경상국립대), 김미련, 김미연(경북대), 김민혜(창원대), 김민환(한신대), 김백영(서
 울대), 김상현(서강대), 김선영(충북대), 김성경(북한대학원), 김성욱(호서대), 김성윤(동아대), 김솔이(서울대), 김연철(성균관대), 김영순(서울
 과기대), 김용현, 김원태(충남대), 김유휘(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윤민(국립창원대), 김이선(연세대), 김인숙(서울대), 김일환(서울과기대), 김
 임미(영남대), 김장진(경북대), 김재형(한국방통대), 김정원 (경북대), 김정환(한림대), 김종우(연세대), 김종훈(서울대), 김주호(경상국립대), 김
 주환(동아대), 김지윤, 김철식(한국학중앙연구원), 김철효(경상국립대), 김태현(성공회대), 김태현(서울대), 김하정(서울대), 김현진(청주대), 김
 화순(중앙대), 김환석 (국민대), 나윤영(서울대), 남재욱(한국교원대), 남찬섭(동아대), 남현주(가천대), 노가빈(서울대), 노종기(한신대), 노진철
 (경북대), 류연미(서울대), 문현경(국민연금연구원), 미주노 쿠니히코(홋카이도가쿠엔대), 박명준(한국노동연구원), 박미진(방송대), 박상은(충북
 대), 박상희(성공회대), 박소영(영남대), 박송이(서울대), 박수민(한국노동연구원), 박순석(한양대), 박재홍(경상국립대), 박정미(충북대), 박종
 식(한국노동연구원), 박지훈(부경대), 박찬중(충남대), 박천웅(전북대), 박치현(대구대), 박혜경, 배성인(성공회대), 백승호(가톨릭대), 변영우
 (경성대), 서동진(계원예대), 서보경(연세대), 서선영(충북대), 서은수(경상국립대), 서정희(군산대), 서호철(한국학중앙연구원), 서효진(틸뷔르
 흐대), 손애라(서울대), 손인서(고려대), 송용한(성공회대), 송인재(전북대), 송해란, 신경아(한림대), 신광영(중앙대), 신나라(서울대), 신동면
 (경희대), 신병현(홍익대), 신승희(성공회대), 신원철(부산대), 신유정(원광대), 신진욱(중앙대), 신희영(라이트주립대), 신희주(가톨릭대), 심국
 보(서울대), 안승택(경북대), 안준순(연세대), 양난주 (대구대), 양승훈(경남대), 엄규숙(경희사이버대), 엄한진(한림대), 연혜원(서강대), 오정아
 (충남사회서비스원), 오중석(경북대), 오혜민 (튀빙겐대), 우춘희(매사추세츠대), 원재연(연세대), 유보선(군산대), 유이지운(시라큐스대), 유재
 연(가천대), 유현미 (창원대), 유형근 (부산대), 유혜진(성공회대), 육주원(경북대), 윤여일(경상국립대), 윤충로(동국대), 윤희만(전북대), 이건
 민(국립군산대), 이광근(동국대), 이광석(서울과기대), 이기홍(강원대), 이나영(중앙대), 이도훈(서울대), 이령경(성공회대), 이미진(건국대), 이
 상준(한국직업능력연구원), 이상직(경북대), 이성근(경북대), 이성철(창원대), 이소훈(고려대), 이숙애 (충북여세연), 이순희(사회복지연구
 소), 이승봉(한국직업능력연구원), 이승윤(중앙대), 이승철(서울대), 이영희 (가톨릭대), 이유미(경북대), 이정은(창원대), 이주하(동국대), 이주
 희(이화여대), 이지수(군산대), 이지원(뉴욕주립올버니대), 이지원 (한림대), 이태수(인하대), 이태정(성공회대), 이하은(서울대), 이한나(한국
 보건사회연구원), 이한이(서울대), 이항우(충북대), 이해님(동국대), 이해진(충북대), 이희영 (대구대), 임상헌(경희대), 임순광(경북대), 임운택
 (계명대), 임정빈(경상국립대), 장민지(경남대), 장세훈(동아대), 장익현(한신대), 장진범(충북대), 장하진(서울대), 전가람(서울대), 전용호(인천
 대), 전의령(전북대), 전재민(서울대), 정보선(경북대), 정성진(경상국립대), 정수남(전남대), 정수빈(매사추세츠대), 정연보(성공회대), 정용래
 (서울대), 정재원(서울대), 정재원(국민대), 정준영(서울대), 정태석(전북대), 정희정(킹스런던대), 조민서(위스콘신대), 조민지(가톨릭대), 조은
 혜(서울대), 조하영(서울대), 조혜진(사이먼프레이저대), 조효래(창원대), 주은우(중앙대), 지주형(경남대), 차유미(한신대), 채장수(경북대), 채
 형복 (경북대), 최경화(경북대), 최권호(경북대), 최민석(경상국립대), 최선영(한국보건사회연구원), 최영준(연세대), 최인이(충남대), 최인
 철 (경북대), 최정은(한국사회보장정보원), 최종숙(서울대), 최지혜, 최현(제주대), 한상진(울산대), 홍덕화(충북대), 홍석호(청주대), 홍성태(창
 원대), 홍찬숙(서울대), 황명환(경북대), 황은정(경기연구원), 황지성(이화여대), 황현일(창원대) 등 223명.

〈경제와사회〉 145호(봄호) 목차



■ 특집: 한국 대학체제의 모순과 대안 모색

엘리트 대학과 병목사회: 한국 대학체제의 구조적 모순과 해결 방안

김종영

대학구조조정 의 역사를 통해 본 윤석열 정부 대학정책

김일환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위한 한국 대학 유연화 전략에 대한 비판적 검토

김도혜

'불안정한 학술 노동자'의 재생산 과정: 인문사회 분야 여성 신진연구자의 경험을 중심으로

천주희·김지수

■ 기획: 미국 대선과 민주당의 패배

캠페인이 중요하다: 2024년 미국 민주당 대선 전략의 한계와 시사점

안병진

■ 일반논문

발리바르 이론에서 물신숭배의 동요와 주체화 양식 이론의 한계

정태석

인간중심주의 비판을 넘어서: 포스트휴먼·다종 인류학에 대한 비판적 검토

전의령

공리주의와 경제학의 불경스러운 동맹: 신고전학과 경제학의 순수성 신화 분석

김원철

〈경제와 사회〉 링크

『경제와사회』 145호(2025년 봄호)는 학회원들에게 제공하는
저널레터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경제와사회〉 145호(봄호) 목차

‘동아시아 대분단체제’에 대한 비판적 평가

유성희

한국 시민사회의 현황과 과제에 관한 청년활동가들의 경험과 인식 : 사회운동, 협치(거버넌스), 사회적경제 활동가들의 초점집단면접(FGI) 연구

신진욱·윤세정·이지홍

먹거리 돌봄 : 먹거리 커먼즈 형성과 대안 먹거리 운동의 확장

김자경·박서현

직업계 고등학교 졸업의 장기적 결과 : 30대 초반 노동시장 지위에서 나타나는 젠더화된 불이익

유해슬·최성수

■ 서평

국가폭력으로 점철된 한국의 근대성을 캐묻다 : 김동춘, 『권력과 사상통제: 한국은 사상통제의 긴 터널에서 빠져 나왔나』(역사공간, 2024)

정찬대

‘완전히 기민하며 화려해진’ 현대자동차의 생산방식이 던지는 질문들 : Hyung Je Jo, Jun Ho Jeong and Chulsik Kim, Agile Against Lean: An Inquiry Into the Production System of Hyundai Motor (Springer Nature, 2023)

양승훈

연구 주제의 고전성, 이론적 자원의 갱신성 : 조효래, 『산업도시의 노동조합: 경남의 지역노동운동』(한국학술정보, 2024)

장진범

사회주택은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한 ‘제3의 길’이 될 수 있을까? : 최경호, 『어쩌면, 사회주택: 당신의 주거권은 안녕하십니까?』(자음과모음, 2024)

장세훈

『경제와사회』 145호(2025년 봄호)는 학회원들에게 제공하는
저널레터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2·3 내란 이후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 심화

■ 지주형(편집위원장, 경남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2025년 현재 한국 민주주의는 12·3 내란 사태로 민주화 이후 최대의 체제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 내란 우두머리인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와 기소에도 불구하고 내란(동조) 및 탄핵 반대 세력의 결집으로 정치적 양극화가 더욱더 심해졌기 때문이다. 정치적 위기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으로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증폭되었으며, 단순한 정치적 갈등을 넘어 법치(rule of law)의 붕괴와 국가기구 안팎의 보수적 네트워크의 조직적 저항이 결합된 복합적 위기 국면으로 발전했다. 극우 세력의 준동으로 서울서부지방법원이 습격을 당했으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무시하고, 사법부와 검찰은 앞뒤가 맞지 않는 논리로 윤석열의 구속을 취소시켰다. (초)법적·물리적 강제력이 공공연히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나아가 정치적 불안정이 실업, 폐업, 강남 부동산 재상승, 의대 수업 파행, 각종 대형 사고의 발생 등 경제·사회적 위기를 심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위기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정권 교체만으로는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대통령 탄핵소추가 이루어지고 나서 오히려 위기가 심화된 배경에는 2000년대 이후 누적된 사회적 양극화와 헤게모니 공백이 자리 잡고 있다. 1987년 체제가 구축한 민주주의 기본 질서는 신자유주의적 변형을 거치며 정치적·경제적 소외 집단을 크게 늘렸고 그 결과 안정된 사회적 기반을 상실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표면화된 이러한 헤게모니의 공백 속에서 자라난 것이 바로 극우 세력이다. 12·3 내란 사태를 겪으며 극우 세력과 이에 대한 동조는 기독교 근본주의와 반증 감정이 결합되면서 유튜브와 SNS를 통해 더욱 확산되었고 서울서부지방법원 폭동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광훈 목사의 광화문파 집회, 손현보 목사의 여의도파 집회, 전한길 강사의 정치적 가담, 주요 대학의 탄핵 반대 집회 등은 보수 전반의 극우화를 보여주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내란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되지만 수사를 받지 않은 행정부의 주요 인사와 검찰 등을 중심으로 대통령 탄핵에 대한 조직적 저항이 계속되었다. 즉, 내란의 선두에 선 총압파, 육사 외에도 모피아, 검찰, 여당 등 국가권력의 보수적 분파가 반민주적 연대를 형성해 탄핵을 반대하고 있다. 특히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와 법원과 검찰의 윤석열 구속 취소 결정은 법의 내적 논리보다 정치적 이해관계가 우선시된 사례로, 법치가 완전히 무너졌음을 의미한다. 겉으로는 법의 모습을 띠고 있을지라도 그것은 법의 지배(rule of law)가 아니라 선택적인 ‘법을 이용한 지배(rule by law)’이며, 동의를 창출할 수 있는 논리를 결여한 강제력의 발동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지금의 위기는 ‘저강도 내전’으로 규정될 수도 있다. 즉, 지금의 정치적 갈등은 물리적 폭력(비상계엄과 서울서부지방법원 폭동)과 함께 법의 외양을 띤 초법적 강제력(법적 판결에 대한 행정 권력의 자의적 판단과 무시)을 동반하고 있다.

(다음 면 계속)

12·3 내란 사태로 증폭된 정치적·사회적 분열과 위기의 치유는 매우 길고 어려운 과정이 될 것이다. 이는 헌법이나 정치제도의 개혁뿐 아니라 총체적인 사회경제적 개혁을 요구한다. 위기의 근원에 정치적 반대편과 법을 존중하고 신뢰하는 사회적 합의 기반의 붕괴가 있기 때문이다. 근본적으로 시효가 다 되어버린 87년 체제를 변화시켜야 한다. 수도권과 중산층 중심의 왜곡된 대표제의 정상화, 대통령과 행정부의 권력 집중 해소 및 군, 검찰, 경제 부처 등 핵심 국가 장치의 반권위주의적·민주적 재편, 신자유주의적 정책 편향의 해소 등이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 시민사회의 헤게모니 재구축과 포괄적 사회연대 체계 구축 노력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

이번 호 특집은 한국 대학체제의 모순과 대안 모색을 주제로 네 편의 논문을 실었다. 먼저 김종영의 「엘리트 대학과 병목사회: 한국 대학체제의 구조적 모순과 해결 방안」은 인서울 대학 중심의 극단적인 서열화와 사립대학들의 무분별한 확장을 특징으로 하는 한국 대학체제의 모순이 기회구조가 사회적·공간적으로 독점되는 병목사회를 심화시킨다고 비판한다. 저자는 ‘인서울 헤게모니’를 깨뜨리고 기회의 다원구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지방에 서울대에 버금가는 연구중심 국립대학 및 이들과 동반 성장하는 사립대학을 육성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김일환의 「대학구조조정 역사의 통째로 본 윤석열 정부 대학정책」은 1990년대 중반 이후 전개된 대학구조조정의 역사적 맥락에서 최근의 대학정책을 검토한다. 저자는 정부의 대학정책이 일관된 ‘신자유주의’ 기획이 아니라 행정적·재정적 조정 과정에서 형성된 복합적인 결과이며, 공과 사의 양 영역에 걸쳐 있는 사립대학 학교법인의 문제로 인해 고등교육재정교부금과 자발적 해산·퇴장 제도의 도입이 계속 무산됨에 따라 국가 주도의 대학구조조정이 한계에 봉착했음을 지적한다. 윤석열 정부의 대학정책은 이를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 위임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정책 조합으로 타개하는 보수적 기획이라는 것이다.

김도혜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위한 한국 대학 유연화 전략에 대한 비판적 검토」는 현재 유학생 유치를 위해 한국의 정부와 대학이 취하고 있는 유연화 전략을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저자는 대학의 재정위기와 지역 인구소멸 문제를 타개할 방편으로 추진되고 있는 유학생 전용 과목 및 캠퍼스 건립, 유학생의 예외적 대우 등의 유연화 조치가 유학생 수를 늘릴지언정 유학생의 지방 정주에는 도움이 안 되는 모순을 내포하고 있으며, 한국 대학 학위 가치의 하락과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낙인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천주희·김지수의 「‘불안정한 학술 노동자’의 재생산 과정: 인문사회 분야 여성 신진연구자의 경험을 중심으로」는 신자유주의적 대학체제 속에서 인문사회 분야 여성 신진연구자들이 어떻게 학술생태계에도 노동시장에도 온전히 소속되지 못한 ‘불안정한 학술 노동자’가 되는지 분석한다. 이들은 학술 활동과 경제 활동을 병행하는 딜레마 속에서 ‘공부하기 위해 공부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으며, 자신의 학술 활동을 노동으로 의미화하지만 학계는 이를 비노동으로 축소하거나 은폐한다. 또한 이들은 학문 재생산의 주요 자원인 인맥과 네트워크에서 남성 중심적 문화로 인한 배제와 차별을 경험하면서도, 이에 대응해 대안적 연결망과 네트워크를 모색하고 있다.

(다음 면 계속)

이번 호 기획은 2024년 미국 대통령 선거의 결과와 의미를 분석하기 위해 안병진의 「캠페인이 중요하다: 2024년 미국 민주당 대선 전략의 한계와 시사점」을 실었다. 저자는 해리스의 대선 전략이 ‘진보의 점진적 강화’라는 방향성을 가졌으나, 부동산 유권자들에게는 이 전략이 단지 바이든 시기의 반복으로만 받아들여졌다고 지적한다. 해리스 등 민주당 주류 진영은 청년, 흑인, 히스패닉계를 포함하는 기존 핵심 지지층이 민주당 진보화에 대해 보이는 비판의식을 안이하게 생각했고, 진보주의적 추세를 과대평가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저자는 이 패배가 중장기적으로 공화당으로의 정당 재편성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향후 정치 지형은 구조적 환경보다 행위자들의 전략적 선택에 따른 불확실성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이번 호 일반논문으로는 여덟 편의 글이 게재되었다. 세부적으로는 네 편의 이론 논문과 세 편의 사례·경험 연구를 실었다. 먼저 정태석의 「발리바르 이론에서 물신숭배의 동요와 주체화 양식 이론의 한계」는 발리바르 이론에서 물신숭배 개념의 동요가 지니는 의미를 해명하고자 한다. 후기 발리바르는 물신숭배를 시장의 주체화 양식으로 규정하면서 생산양식과 주체화 양식의 병존이라는 ‘두 개의 토대’ 이론을 제시한다. 이러한 양식론을 발리바르의 ‘구조-인식 결합체’ 사유를 통해 토대/상부구조의 장소론과 접합하면 토대와 상부구조 모두가 탈인격적 체제와 그 인격적 효과인 이데올로기/권력적 주체화로 존재하고 한 사회의 역사적 현실은 다원적이고 복합적인 중첩결정의 과정임을 이해할 수 있다.

전의령의 「인간중심주의 비판을 넘어서: 포스트휴먼·다종 인류학에 대한 비판적 검토」는 포스트휴먼·물질적 전환의 주요 두 축인 탈인간중심주의와 탈비판이 포스트휴먼·다종 인류학에 나타나는 방식을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저자는 인간과 비인간의 행위성을 동등하게 고려하려는 ‘분석적 평등주의’가 에스노그래피를 만날 때 비인간 행위성에 과도하게 주목하고, 사회적 불평등, 권력, 정치의 문제를 상대적으로 비가시화하며, 탈비판적 경향은 정치적 주체화를 통한 집합적 행동의 가능성을 차단하고 낙관적 무기력만을 낳는다고 비판한다.

김원철의 「공리주의와 경제학의 불경스러운 동맹: 신고전학과 경제학의 순수성 신화 분석」은 공리주의와 경제학의 결합이 가져온 이론적 변화를 비판적으로 고찰한다. 저자는 공리주의가 원래 사회개혁의 이념이었으나 신고전학과 경제학과 결합하면서 그 개혁성을 상실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또한 경제학이 순수이론을 추구하면서 공리주의의 실천적 측면이 희석되고, 자연주의적 요소가 인간주의적 요소보다 우위를 차지하게 되었다는 점을 지적한다.

유성희의 「‘동아시아 대분단체제’에 대한 비판적 평가」는 이삼성이 최근 저작들에서 보여준 이론적 접근을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저자는 이삼성의 ‘천하’, ‘동아시아 제국체제’, ‘동아시아 대분단체제’ 개념에 대해 수천 년간 중국과 주변국들이 항상 천하라는 개념하에 살았는지, 동아시아 제국체제에서 미국과 일본의 카르텔이 때때로 작동했는지, 1990년대 이후 유럽과 달리 동아시아에서만 대분단체제가 유지되고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신진욱·윤세정·이지홍의 「한국 시민사회의 현황과 과제에 관한 청년활동가들의 경험과 인식: 사회운동, 협치(거버넌스), 사회적경제 활동가들의 초점집단면접(FGI) 연구」는 시민사회의 본질적 요소인 비영리성 및 비정부성의 정도를 기준으로 세 제도 부문을 구분하고, 각 부문에 깊이 관여해 온 주로 20~30대 청년활동가 집단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별한다. 세 집단은 시민과의 관계, 시민사회의 문제와 과제, 정부·정치와의 관계에서 다른 입장을 보였지만, 공통적으로 시민사회의 내적 다양성, 긍정적·부정적 추이의 공존, 경제적 지속가능성과 조직·활동가 재생산 문제, 조직문화와 세대·위계에 따른 권력 문제, 민관협치와 공공지원의 양가성을 강조한다.

(다음 면 계속)

김자경·박서현의 「먹거리 돌봄: 먹거리 커먼즈 형성과 대안 먹거리 운동의 확장」은 공동체 식당과 공유냉장고를 사례로 삼아 먹거리를 커먼즈로 만드는 먹거리 돌봄을 구체적으로 분석한다. 이 연구는 먹거리의 생산·유통·가공·소비·폐기의 과정에 초점을 둔 기존의 대안 먹거리 운동에 돌봄이 추가되면서 대안 먹거리 운동이 개념적으로 확장되고 진화하고 있음을 보인다.

유해슬·최성수의 「직업계 고등학교 졸업의 장기적 결과: 30대 초반 노동시장 지위에서 나타나는 젠더화된 불이익」은 직업계 고등학교 졸업이 노동시장에서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에 대한 상반된 관점을 검토하고, 졸업 후 10년 이상이 지난 시점에서의 장기적 결과를 분석한다. 저자들에 따르면 특성화고 졸업의 불이익은 여성에게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이들은 노동시장의 (최)상위지위 일자리 종사 확률은 낮고, 취약지위 일자리 종사 확률은 높았으며 평균 임금도 낮았다. 반면 남성 졸업자들에게는 취약지위 일자리 종사 확률이 높게 나타났지만 그 외에 유의미한 불리함은 발견되지 않는다.

이번 호에는 책 네 권에 대한 서평을 실었다. 정찬대의 「국가폭력으로 점철된 한국의 근대성을 캐묻다」(김동춘, 『권력과 사상통제: 한국은 사상통제의 긴 터널에서 빠져나왔나』 역사공간, 2024)는 김동춘의 저서가 일제강점기부터 이어져 온 국가권력의 사상통제와 감시를 여러 장(場)과 집행의 측면에서 분석적으로 접근하고 있음을 강조한다. 특히 사상통제의 장으로서 냉전체제하 지구권력의 장, 한국전쟁과 정전체제하 통치권력의 장을 다루고 있으며, 감옥 내 비전향장기수에 대한 전향정책과 감옥 밖 사상통제의 연결 고리를 '인정투쟁' 개념을 통해 설명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양승훈의 「'완전히 기민하며 화려해진' 현대자동차의 생산방식이 던지는 질문들」(Hyung Je Jo, Jun Ho Jeong and Chulsik Kim, Agile Against Lean: An Inquiry Into the Production System of Hyundai Motor, Springer Nature, 2023)은 조형제·정준호·김철식의 공저가 현대자동차의 애자일 생산방식을 글로벌 학술장에서 고유한 생산방식으로 위치 짓는 도전적 기획임을 평가한다. 저자는 애자일 생산방식의 기저에 깔린 권위적 실험주의, 엔지니어 주도 혁신, 모듈화를 통한 부품 공급망 관리 등의 특성을 분석하면서도, 이 생산방식이 생산직 노동자, 지역, 부품 협력사들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서도 질문을 던진다.

장진범의 「연구 주제의 고전성, 이론적 자원의 갱신성」(조효래, 『산업도시의 노동조합: 경남의 지역노동운동』 한국학술정보, 2024)은 조효래의 저서가 1987년 이후 민주노조운동이 제기한 핵심 과제인 독자적인 전국적 구심 형성, 산별노조 건설, 작업장 민주화라는 고전적 주제를 갱신된 이론적 자원으로 분석하고 있음을 높이 평가한다. 특히 노조를 공론장으로 규정하고 감정 이론을 전유하는 등 새로운 이론적 자원을 성실하고 독창적으로 활용하면서도, 핵심 주제에 대한 집요한 천착을 놓치지 않는 학문적 태도를 강조한다.

장세훈의 「사회주택은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한 '제3의 길'이 될 수 있을까?」(최경호, 『어쩌면, 사회주택: 당신의 주거권은 안녕하십니까?』)는 최경호의 저서가 사회주택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환기하고 그 실상을 알리는 데 기여하고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사회주택이 주택 문제 해결의 '제3의 길'이 되기 위해서는 시민사회의 성숙과 물질적 토대 구축이라는 과제가 남아 있음을 지적한다. 특히 사회주택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주택 자체의 문제 틀에 갇히기보다 사회구조적 맥락 속에서 대안을 모색하는 자세가 필요함을 강조한다.

제 38회 콜로키움

2025년 3월 28일(금) 영등포 사무실에서 노중기(한신대) 선생님의 사회로 지난해 김진균 학술상을 받은 박상은(충북대) 선생님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운동 과정에 관한 내용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후 신희주(가톨릭대) 선생님과 전주희(서교인문사회연구실) 선생님의 지정 토론과 함께 심도 깊은 토론이 이어지면서 산업안전보건운동의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서 논의하였습니다.

제39회 비판사회학 콜로키움

산재사망의 관례화에서 범죄화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운동 과정을 중심으로

발표: 박상은 (충북대학교)
 사회: 노중기 (한신대학교)
 토론: 신희주 (가톨릭대학교)
 전주희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참가신청



일시 2025년 3월 28일 (금) 16:00
 장소 비판사회학회 회의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19길 13, 삼광빌딩 3층
 줌미팅 참가신청자 이메일로 개별 발송
 문의 sansahak1984@gmail.com



회원신간소개



김철식

경계에 선 노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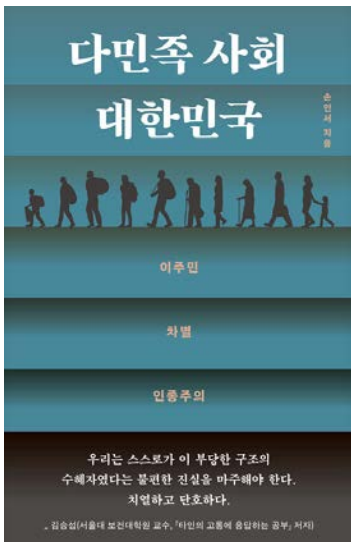
이디

경계에 선 노동 파이돈, 2025년 2월, 144쪽

김철식 (한국학중앙연구원)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으로 상징되는 급격한 기술 발전이 경제와 사회, 인간의 삶과 노동에 점점 더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 책에서는 새로운 기술의 변화가 노동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맞춘다. 디지털화로 대표되는 현재의 급격한 기술 변화가 노동, 즉 사람들의 일하는 모습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향후 조망 가능한 노동의 미래는 어떤 모습이고 이를 위해 기술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재구성해야 하는가? 디지털 자본주의에서 새로운 노동권의 정립을 모색하는 이 책은 이와 같은 질문을 던진다.

[목차링크](#)



이주민

차별

인종주의

우리는 스스로가 이 부당한 구조의 수혜자였다는 불편한 진실을 마주해야 한다. 치열하고 단호하다.

김승섭(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타인의 고통에 응답하는 공부' 저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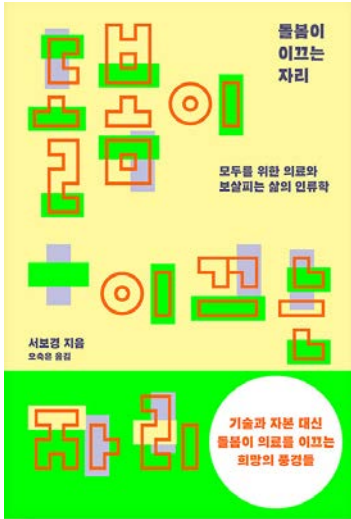
다민족 사회 대한민국 돌베개, 2024년 12월, 235쪽

손인서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원)

이 책에서는 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이주민과 관련된 문제를 살펴보고 그 핵심을 드러낸다. 많은 담론이 혐오와 착취를 일삼는 내국인 개인을 문제 삼는다. 하지만 이 책은 우리가 운영하는 제도와 구조 자체가 인종주의와 같은 문제를 발생시키며 조장한다고 지적한다. 개개인의 의식을 바꿈으로써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미 건설 현장에서, 중소 공장에서, 농어촌에서, 돌봄이 필요한 곳에서 이주민이 일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돌아가지 않는다. 이주민을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인정하는 구조를 만들지 않고서는 이 체제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 그 첫걸음은 '다민족 사회'라는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목차링크](#)

회원신간소개



돌봄이 이끄는 자리 반비, 2025년 2월, 376쪽

서보경 (연세대)

HIV/AIDS 인권운동의 현장에서 함께하며 감염인들의 삶을 기록한 저자 서보경은 이 책에서 다시 한번 질병과 건강, 개인과 공동체의 문제를 파고든다. 전작에서 연구 대상과 객관적인 거리를 두기보다는 기꺼이 '휘말리는' 방식을 택한 것처럼 저자는 병원에서 마을로, 환자의 집으로 걸음을 옮기며 치유와 돌봄의 현장을 깊숙이 들여다보고, 모두를 위한 무상에 가까운 의료가 어떻게 실현되는지, 각각의 주체들이 어떤 관계를 맺고 돌봄을 주고받는지 섬세하게 기록한다.

[목차링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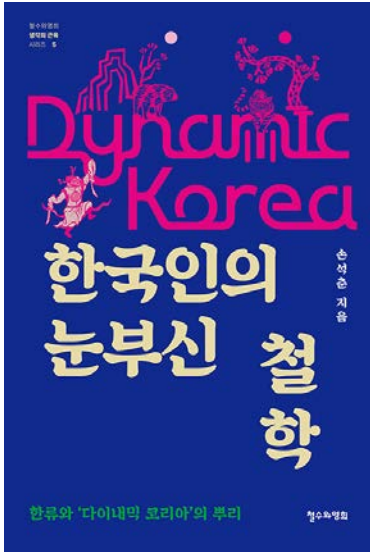
플랫폼 자본과 노동 책과나무, 2025년 1월, 460쪽

노동포럼나무

노동포럼 나무는 2018년 출범한 노동 연구자들의 모임으로 기획연구, 월례포럼, 세미나를 운영하고 있다. 이 책은 노동포럼 나무의 기획으로 디지털 플랫폼 자본·노동 시장의 등장과 성장, 그 속에 드리운 명과 암, 그리고 나아갈 길을 모색한 연구서이다. 플랫폼 경제는 노동의 방식, 고용의 구조, 그리고 자본 축적 방식을 크게 변화시키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변화가 노동의 불안정성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이에 플랫폼 자본의 구조와 이해대변 전략에 대해 먼저 알아본 후 배달, 대리운전, 가사서비스, 데이터 라벨링 노동 등의 사례를 통해 플랫폼 자본이 노동 과정을 어떻게 재구성하고, 새로운 경영전략을 실현하는지를 탐구한다.

[목차링크](#)

회원신간소개



한국인의 눈부신 철학 철수와 영희, 2025년 2월, 360쪽

손석준

<단군신화>와 <처용설화>, <해와 달이 된 오누이> 같은 신화와 설화들을 통해 한국인의 철학에 담긴 '인간적 성찰'과 '사회적 실천'에 대해 알려준다. 한국인이 어떤 철학을 품고 삶을 살아가며 죽음을 맞았는지에 대한 해답을 신화와 설화에서 찾아내고 있다. 저자는 한국인에게 자리를 잡은 철학은 인류 공동의 유산으로, 독자들은 이 책을 통해 '다이너믹 코리아'의 뿌리를 발견할 수 있고 새로운 인류 문명을 열어갈 상상력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한다. 나아가 한국인의 철학에는 "사람보다 자본, 연대보다 경쟁을 중심에 둔 사회체제"를 극복하고, 인류세의 위기를 넘어설 힘을 품고 있다고 강조한다.

[목차링크](#)



회원동정

- 이종구 회원: 학교법인 덕성학원 이사장 취임(2024년 12월)

신입회원

- 정회원 김태은 (가톨릭대 사호복지학과)
신광수 (가톨릭대 보건의료경영대학원)
김재민 (전북여성가족재단)
최셋별 (이화여대 사회학과)
남형우 (고려대 사회학과)
한승훈 (중앙대 공공인재학부)
전승봉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양학부)
장경섭 (서울대 사회학과)
문영민 (중앙대 사회복지학부)
장서현 (고려대 사회학과)

회원현황

(2025년 3월 현재)

- 총회원 207명 (정회원 186명 / 특별회원 16명 / 준회원 4명 / 기관회원 1개)

(※ 마지막 회비 납부일자가 2년을 초과할 경우에는 회원자격이 중지되고, 회원현황에서 제외됩니다.)

+ 회원가입 및 회비납부 안내 +

□ 정회원: 대학원 석사과정 졸업 이상의 학력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경제와사회> 투고자격 및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회비는 개인의 상황과 능력에 따라 아래의 회비유형 중 하나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1) 연 24만원 (월2만원)

(2) 연12만원 (월1만원)

(3) 연6만원 (비전임/정년퇴임교수/박사과정)

(4) 평생회원 특별회비 50만원 이상 (정년퇴임회원)

□ 준회원: 석사과정 대학원생 (준회원 회비: 연2만원)

▶ 회비납부계좌: 국민은행 533301-01-096442 (예금주: 비판사회학회)

〈경제와사회〉가
회원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경제와사회〉는 회원 여러분의 특집
주제 제안 및 특집필자 추천, 서평대상
도서 추천(국내필자도서에 한정), 그리
고 ‘논평과 토론’ 코너 투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참여하실 회원들께서는 편집위원회
(crisocio@gmail.com)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활동 보고

2025년 1월 17일	인수인계식
1월 19일	1차 운영소위
1월 24일	1차 운영위원회
2월	분과 구성 및 1차 분과 모임
2월 28일	2차 확대운영소위
3월 28일	2차 운영위원회
3월 28일	제39회 콜로키움
3월 31일	탄핵 촉구 성명서 발표

2025년 임원진

▪ 운영위원회	회장 이항우 (충북대)	부회장 최인이(충남대)	부회장 신희주(가톨릭대)
	운영위원장 황현일(창원대)	연구위원장 박지훈(부경대)	운영위원 강민형(전북대)
	운영위원 강인화(강원대)	운영위원 구은정(동국대)	운영위원 김성운(문화사회연구소)
	운영위원 김란(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운영위원 김정환(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운영위원 김주호(경상대)	운영위원 박상희(성공회대)	운영위원 박천웅(전북대)
	운영위원 박찬중(충남대)	운영위원 서선영(충북대)	운영위원 양승훈(경남대)
	운영위원 유현미(창원대)	운영위원 옥주원(경북대)	운영위원 이건민(군산대)
	운영위원 전윤정(국회입법조사처)	운영위원 전의령(전북대)	운영위원 정현일(부경대)
	운영위원 조혁진(한국노동연구원)	운영위원 차유미(한신대)	운영위원 홍덕화(충북대)
	운영위원 최종숙(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운영위원 홍성태(창원대)	운영간사 김종훈(서울대)
▪ 편집위원회	편집위원장 지주형(경남대)	편집부위원장 유형근(부산대)	편집위원 권오용(충남대)
	편집위원 김도균(제주대)	편집위원 김민정(서울시립대)	편집위원 김여진(강원대)
	편집위원 김철효(경상국립대)	편집위원 노승미(중앙대)	편집위원 박수민(한국노동연구원)
	편집위원 박정미(충북대)	편집위원 박치현(대구대)	편집위원 서영표(제주대)
	편집위원 유성희(한경국립대)	편집위원 이정연(서울여대)	편집위원 이현옥(서강대)
	편집위원 정재원(국민대)	편집위원 정태석(전북대)	편집위원 조은주(전북대)
	편집위원 주혜진(대전세종연구원)	편집위원 하대청(광주과학기술원)	편집위원 김주환(동아대)
	재외편집위원 구해근(Univ. of Hawaii at Manoa)		재외편집위원 권학준(리쓰메이칸대)
	재외편집위원 박현옥(York University)		편집간사 강석남(중앙대)